

# 제1회 보성 청년 페스티벌서 '꿈·열정' 펼친다

### 오늘부터 이틀간 보성공설운동장서...뉴트로·EDM 파티 등 '청년 열정·창의성' 발휘 환경 조성 목표...지역사회 발전 도모

보성군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보성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청년의 꿈과 열정을 담은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모든 청년들이 주인공이

때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청년·청소년 댄스&밴드 공연 ▲뉴트로 콘서트 ▲대학 가요제 리턴즈 ▲타임캡슐 EDM 파티다.

27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청년·청소년 댄스&밴드 공연에는 지역 내 다양한 대학과 청소년 댄스팀에서 선발된 팀들이 참여해 자신만의 독특한 안무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특히 K-POP, 힙합, 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댄스 장르가 표현돼 청년들의 다채로운 에너지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무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뉴트

로 콘서트는 김승민, 래원, 경서예지, 김종국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군다. 이들은 90년대 히트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으로 관객들에게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온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예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돼 젊은 음악인들의 재능 발

휘 기회가 열린다. 28일 오후 4시 열리는 대학가요제 리턴즈는 90년대 대학가요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참가 청년들이 과거와 현재의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펼친다. 페스티벌의 마지막은 청년들의 열정과 함께 타임캡슐 EDM 파티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DJ 김성수, 재연, DJ 이하늘 등 유명 DJ들이 참여해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파티가 끝나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고, 추후 열릴 날을 기약하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저장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페스티벌의 핵심 목표"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순천시가 오는 10월3일부터 5일까지 '제29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민속문화축제 백중놀이 모습. (순천시 제공)

## “조선으로 시간여행”...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 내달 3-5일 개최...민속체험·공연 등 다채

순천시가 낙안읍성의 역사성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재현하는 '제29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개최한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낙안읍성에서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낙안읍성에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며, 조선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

텐츠를 제공한다. 축제의 개막식은 10월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식전 공연인 육군 31사단 군악대 행진, 낙안군수 부임행렬, 대북치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오후 3시30분에 개막선언, 개막 주제공연 낙안읍성의 탄생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민

속문화를 재현하는 백중놀이, 성곽쌓기, 수문장 교대식, 기마장군 순라의식, 전통혼례, 판소리, 가야금 병창, 장극 '김빈길 장군' 등을 비롯해 플래시몹 퓨전시대극, 조선사물사, 시립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민속놀이 경연대회, 장사 씨름 대회, 큰줄다리기 등 참여 프로그램과 먹거리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동문 입구 버스킹 공연, 스탬프 인종 활동 등

읍성내·외부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캐릭터 분장을 한 배우들이 읍성 내부 여러 장소에서 '생생 낙안읍성 캐릭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관광객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 조성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 낙안읍성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낙안읍성지원사업소 관리팀(061-749-8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기 기자

## 담양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성황'

### 아름다운 남편상 등 표창장 수여도

담양군은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7인으로 구성된 가족밴드 '예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

로자들에게 아름다운 남편상, 평등부부상, 양성평등 향상 등 세 분야의 총 16명에게 표창패·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들이 실생활 속 양성평등 사례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청소년 문화의 집 공모작 '청소년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양성평등의 의미와 가치 재발견과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함께 만드는 평등한 담양,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모든 군민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으로 다 함께 행복한 담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 교통사고 유발...화순읍 회전교차로 설치·개선 공사 완료

### 현대요양병원·대리 대광아파트 앞

화순군은 26일 "화순읍 현대요양병원 앞에 회전교차로(사진)를 설치하고, 대리 대광아파트 앞 회전 교차로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기존 현대요양병원 앞 교차로는 신호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 불편함이 발생했으며, 광신프로그래스아파트에서 하나로마트 방향 좌회전 대기 차선이 짧아 차량 흐름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리 대광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는 직선 도로 형태로 인해 진입 차량

이 회전 차량보다 우선 진입하는 문제가 있었고, 최근 3년간 총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화순군은 현대요양병원 앞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새로 설치하고, 광신프로그래스아파트에서 헬스테이트 1차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일방통행로 지정과 신호등을 설치해 교통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대리 대광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는 보도 확장 및 교통섬 위치 수정을 통해 진입 차량이 감속 후 회전교차로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요양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에 도비 5억원·군비 3억원, 대리 대광아파트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에는 도·군비 각각 1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시장 앞 교차로에도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착수할 계획"이라며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장흥 '1박2일 통일열차' 이틀만에 전석 매진

### 내달 25-26일 강원도 고성 6·25체험관 등 관람

장흥군은 26일 "오는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운행하는 '2024 정남진장흥 통일열차' 전좌석이 매진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최초 시행하는 이번 '1박2일 통일열차'는 총 384명을 태우고 강원도 고성군으로 향한다. 승객들은 광주 효천역에서 출무식 행사에 참석한 뒤 기차에 탑승해 정오께 정동진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통일열차 내에서는 통일 인문학, 통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운영된다. 1일 차에는 강원도 고성군과의 업무협약 및 통일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2일 차에는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6·25전쟁 체험관 등 통일 체험 투어 후 장흥군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 통일열차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탑승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차 모집 2일 만에 마감됐다. 최연소 탑승객은 가족과 통일여행을



떠나는 10세 어린이며, 최고령 탑승자는 79세 어르신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회관·우드랜드 등에서 진행되는 '함께 여는 더 큰 미래, 정남진 장흥 통일주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에서 주최하는 '통일주간'은 북한 주민 생활용품 및 사진 전시회, 통일 체험 프로그램, 평화 통일 활동가 세미나 등 문화·체험 중심의 행사로서 군민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한다. /장흥=노형록 기자

## "여수세계섬박람회 '부제' 함께 만들어요"

### 내달 6일까지 설문조사...여수시 누리집 배너·QR코드로 참여

(제)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오는 10월6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섬박람회 주제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고 브랜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 문항은 섬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표현하는 10가지의 부제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여수시청 누리집에 배너 링크를 통해 접속 또는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시민 설문조사,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스토리가 담긴 부제 선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제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짜릿한 손맛"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

### 고흥군, 29일 도양읍 일원서...참가비 10만원·선착순 150명

고흥군은 26일 "오는 29일 도양읍 일원에서 '제1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흥군과 고흥군의회가 주최하고 녹동선우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감성돔 낚시의 메카로 자리 잡은 녹동항과 소록도 인근 방파제 등 3개소에서 열린다. (사진) 이번 낚시대회는 참가비 10만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27일까지 온라인(네이버 '녹동항 전국바다낚시대회' 검색)을 통해 선착순 150명을 사전 접수 받는다. 온라인 접수 미달 시 당일 현장에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순위는 대상 어종인 감성돔(25cm 이상)을 전장 계측 후 크기가 큰 순서로 결정되며, 우승자에게는 시상금 700만원, 2위 200만원, 3위 100만원이 수여된



다. 이 밖에도 최장거리상, 최고령상, 최연소상, 여성위너상 등 특별상도 시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낚시대회를 통해 많은 낚시인과 관광객들이 여족 자원이 풍부하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고흥 바다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고흥 바다가 '다시 찾고 싶은 바다'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최병환 기자